

탈탄소 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기업의 녹색 전환과 녹색 스킬 분석

탈탄소 경제로의 이행은 환경비용을 내재화·최소화하고 녹색시장에서 성장의 동력을 찾는 전반적인 사업 운영 방식(business-as-usual)의 변화, 즉 기업의 '녹색 전환'을 필요로 함. 국내 이차전지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는 기업의 녹색 전환이 에너지 관련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환경 지속가능성(environmental sustainability)의 가치와 규범에 입각한 경영 전반의 사업 활동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줌. 기업은 조직 전반에 걸친 녹색 활동의 확산과 고도화를 위하여 기술적 스킬(technical skills)뿐만 아니라 일반적 스킬(general skills)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음. 기업이 직면한 탄소중립 대응의 대내외적 요구, 기업의 조직 역량에 따라서 자기 학습, 직장 내 학습, 정부 훈련 프로그램, 또는 아웃소싱 전략을 복합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기업의 단계적인 녹색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서 포괄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선택적으로 제공하는 녹색 숙련 정책의 개발이 필요함.

01 분석의 필요성 및 분석 자료

기후 위기에 따른 탈탄소 경제로의 이행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기업 전환의 중요성이 강조

-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탈탄소 경제로의 이행 전략은 화석연료 기반의 산업을 신재생 에너지 기반의 산업으로 이행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환경비용을 외부화해 왔던 기업의 기존 사업 운영 방식(business-as-usual)에서 환경비용을 내재화하고, 동시에 새롭게 형성되는 녹색시장에서 성장의 동력을 찾는 방식으로 전환이 진행되어야 하며, 이것은 기업의 '녹색 전환'을 의미함
- 기업의 녹색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현재 기업은 환경 지속가능성의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 요구되는 숙련은 무엇인지에 대해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함

분석 자료: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내 이차전지 기업체 대상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업 활동’ 설문조사(2023)」 및 심층 인터뷰

- 분석 대상: 총 183개 국내 이차전지 기업
 - 한국배터리산업협회 회원사 리스트 중 이차전지 생산과 관련된 회사 140개, 한국표준산업분류 ‘축전지제조업’에 포함된 회사 43개 중 최종 50개 기업 응답
- 기업체 대상 설문조사의 응답 대상자는 특정 부서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부서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들로 선정하여 분석함
 - ESG 부서와 같이 명목상 관련성이 높은 부서 외에도 기획, 영업, 구매, 시설관리, 환경 등의 부서 내에서 업무 관련성이 높은 실무자를 대상으로 선정
- 설문조사지는 ①응답자 및 소속 기업체 유형, ②기후변화 및 탄소규제에 대한 인식, ③환경 지속가능성에 대한 기업의 실천적 활동 및 직무 변화, ④녹색 스킬, ⑤정부 정책 및 역할로 구성됨
- 심층 인터뷰: 국내 이차전지 공급망 내에서 배터리 제조사, 핵심 소재 공급업체, 기타 부품 업체의 기후변화 대응 관련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최종 12명이 참여함

02 기업의 환경 지속가능성 문제 인식과 이에 대응한 활동

대부분의 2차전지 기업이 환경 지속가능성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위해 마케팅, 공급망관리(SCM), 인적자원관리 및 개발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 2차전지 기업의 약 90%가 환경 지속가능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심지어 약 30%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환경 지속가능성을 ‘중요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기업은 없음
- 2차전지 기업의 환경 지속가능성 인식에 미치는 요인으로는 ‘공급망 내의 고객사의 요구(38%)’가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은 ‘해외 규제 시장에 대한 순응 또는 준비(20%)’로 나타났음
 - 반면, ‘시민사회의 요구(2%)’와 ‘민간 기업의 자발적인 변화에 대한 동참 또는 준비(2%)’는 환경 지속 가능성 인식에 가장 적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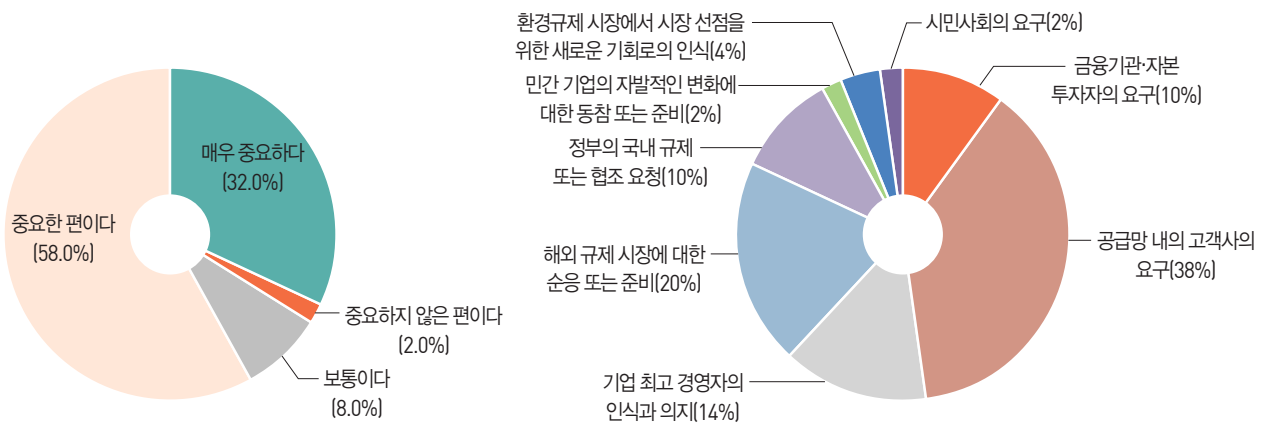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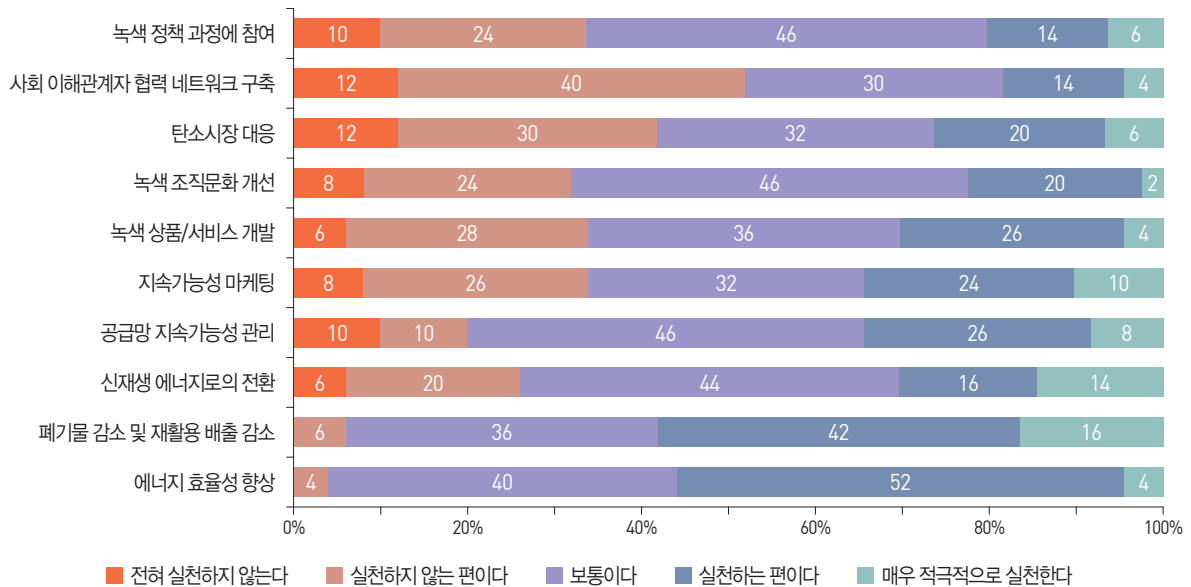


그림 1 | 기업의 환경 지속가능성 문제 인식과 활동(%)

- 2차전지 기업의 환경 지속가능성 관련 활동을 살펴보면, 에너지 관련 활동뿐만 아니라 마케팅, 공급망 관리, R&D 등 일반적인 비즈니스 활동과 정부, 투자자, 사회 전문가 및 단체와의 사회적 관계 발전 활동에도 집중하고 있음
 - 절반 이상의 2차전지 기업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에너지 효율 개선(긍정 응답 56%), 폐기물 관리(긍정 응답 58%) 등 에너지 관련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많은 기업이 환경 지속가능성을 위해 ‘지속가능성 마케팅’, 공급망 지속가능성 관리, 녹색 조직문화 개선(HRD/HRM)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예를 들면 34%의 기업이 환경 지속가능성을 위해 SCM과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마케팅과 SCM이 기업의 환경 지속가능성 활동에서 큰 비중을 차지함



| 그림 2 | 기업의 환경 지속가능성 실천 수준(%)

03 기업의 녹색 전환에 요구되는 녹색 스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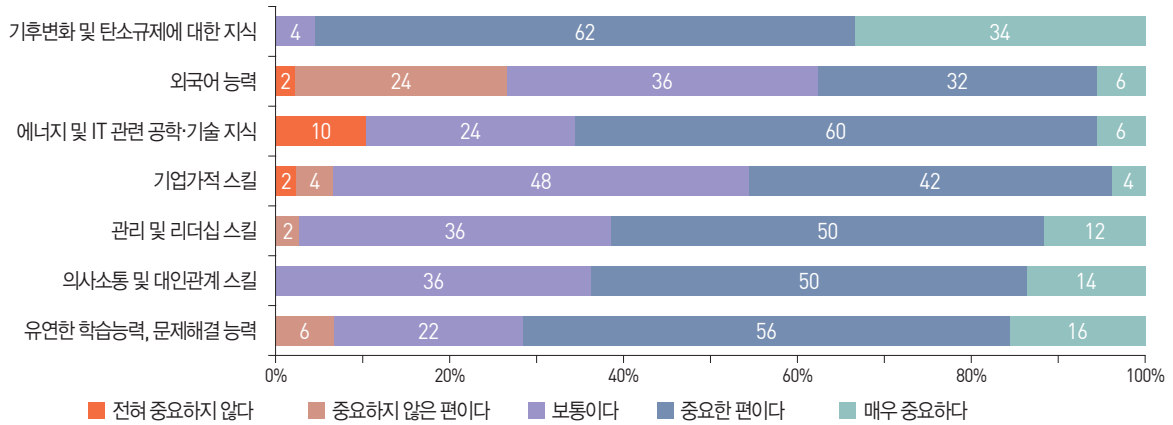
기업의 녹색 전환에 요구되는 녹색 스킬은 4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으며, 환경 지속가능성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스킬은 ‘에너지 및 IT 관련 지식’이 아니라 ‘기후 변화 및 규제 관련 기술과 지식’으로 나타남

- 기업의 녹색 전환에 요구되는 녹색 스킬은 ① 일반적 스킬(문해력, STEM 지식, 외국어 능력, 의사소통 능력, 자기 학습 및 문제 해결 능력), ② 간단한 일상적 작업(에너지 효율 및 자원 상태 체크 및 보고), ③ 높은 수준의 친환경 기술 및 지식(IT, 에너지 관련 기술 및 엔지니어링 기술), ④ 높은 수준의 일반적 스킬(ESG 기획 및 관리, 기업가 정신, 혁신) 유형으로 유형화할 수 있음

| 표 1 | 녹색 스킬의 4가지 유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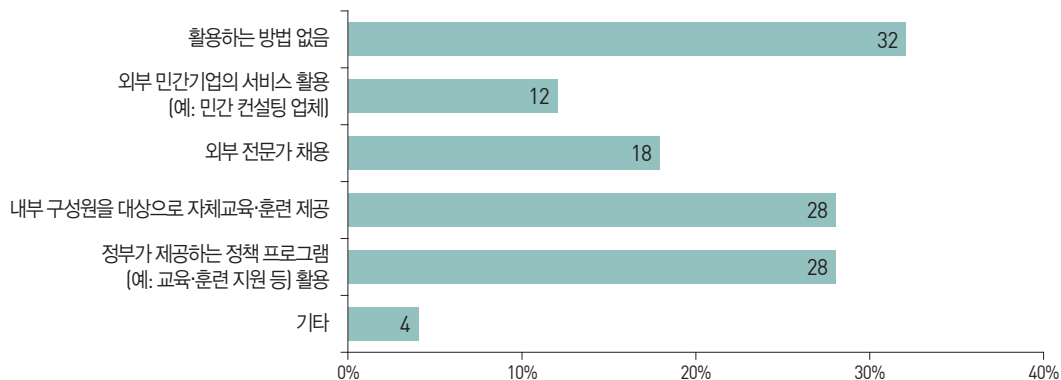
녹색 스킬	스킬 적용 범위	
	핵심 과업	특수 과업
비전문적 지식 및 스킬	① 문해력, STEM 지식, 외국어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② 에너지 효율 및 자원 상태 측정 및 관리
전문가적 지식 및 스킬	④ ESG 계획 및 관리, 기업가 정신, 혁신	③ 친환경 기술력, LCA, 탄소 회계, M-R-V(측정, 보고, 검증) 등

- 설문조사 결과, 현재 기업은 환경 지속가능성 문제에 대처하는데 ‘기후 변화 및 규제 관련 지식’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자기 학습 및 문제 해결 능력,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능력, 외국어 능력과 같은 기본적인 일반적 스킬도 많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60% 이상의 기업이 자기 학습 및 문제해결 능력과 커뮤니케이션 및 대인관계 능력이 중요하다고 인식함
- 일반적 스킬의 중요성은 현재 기업이 환경 지속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업 내부 조직 및 구성원 간의 효과적인 협력과 학습, 문제해결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



| 그림 3 | 중요한 녹색 스킬(%)

- 설문조사 결과 32%의 기업은 '외부에서 녹색 기술을 확보할 방법이 없다'고 응답함
 - 이 결과는 기업이 녹색 기술을 동원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그 대신 기업이 녹색 기술을 기업 외부가 아닌 '일하며 배우기(learning-by-doing)', 직장 내 교육훈련(OJT), 재직자 대상 정부 훈련프로그램 활용을 통해서 기업 내부에서 동원한다는 것을 의미함
 - 반면, 약 12%의 기업은 '친환경 업무를 환경컨설팅업체에 위탁'하고 있으며, 18%는 외부 전문 인력을 채용하고 있음. 이 전략은 상대적으로 소수에 불과하지만,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친환경 업무의 경우 외부 자원을 활용하는 것을 보여줌



| 그림 4 | 녹색 스킬 획득 방법(%, 복수 응답)

04 시사점

- 환경 지속가능성에 대한 2차전지 기업의 인식은 전반적으로 높으며, 이러한 높은 인식은 기업 외부로부터의 영향력(고객사의 요구, 정부 규제, 투자자 등의 요구)을 반영함
- 기업의 친환경 활동은 에너지 관련 활동(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에너지 효율화)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이 외의 기업 전반에 걸친 사업활동(마케팅, 공급망 관리, 연구개발, 인적자원관리 등)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음. 즉 기업의 녹색 전환은 에너지 부문에 국한되지 않음
- 현재 기업의 녹색 전환 활동은 기후 및 에너지 관련 기술지식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스킬인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 능력 등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혁신 및 기업가 정신, 탄소 규제 관련 전문지식과 녹색 스킬은 외부에 아웃소싱하는 전략을 사용함
- 기업의 녹색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기업이 당면한 환경 지속가능성 요구에 필요한 일반적인 스킬과 지식을 향상시키고, 장기적으로 혁신적인 녹색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높은 수준의 녹색 스킬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 육성이 필요함